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적응방안 발표에 관한 토론

최 규 련 (수원대학교 교수)

발표자께서 먼저 역사적으로 농촌사회의 변화와 여성문제를 서술하고 사회문화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 여성가족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농촌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농촌여성의 적응방안을 말씀하셔서 이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발표 요지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로서 농촌의 농가 인구 감소와 마을공동체 해체, 여성의 다중역할, 자녀교육 현황, 도시 저급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고유한 생활문화의 재창출, 교육시설 확충, 농업참여 확대, 상담교육 등을 제시하였고, 소비경제적 측면의 변화로 농업의 영세화, 소비생활 피해, 소득의 불안정, 부채문제를 지적하고 적응방안으로 정보화교육, 농업경영 참여, 소비자 교육, 수출전략상품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측면의 변화로서 변형된 가부장제, 농외소득활동, 가사노동분담, 자녀와의 관계, 노후생활 대책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적응방안으로 여성의 주체의식 개혁,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여가시간 확대 및 활용, 가사노동의 기계화, 노후생활 준비 등을 제안하셨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적응방안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농작업을 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에 관한 기록, 분석,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이었다. 물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정보화사회라고 불리는 21세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토론자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사회의 변화를 여성문제와 연결해서 접근하고, 또 적응방안에서도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대책과 정책적 제안들을 서술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농촌사회에 관한 내용이 많아 듣고 싶은 내용이 불충분하게 다뤄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여성문제와 관련된 농촌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연결하여 말씀하셨으면 더 내용전달이 잘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하여 산만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발표자의 논리전개 과정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중복되고 혼돈된 느낌을 받았다. 발표자께서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촌여성의 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 여성·가족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그렇게 구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사회구조적인 거시적 측면을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명명하고, 물질적 측면을 소비경제적 측면으로, 그리고 농촌의 인간관계나 가족과 관련된 측면을 여성·가족적 측면으로 명명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제목과 내용이 과연 그 측면에 속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농촌사회의 변화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신 여성의 다중역할과 자녀교육 문제들은 여성·가족적 측면에 포함될 수 있고, 여성·가족적 측면으로 구분한 변형된 가부장제, 농외소득활동은 오히려 사회문화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역할 변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언급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돈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변화나 적응방안에서 각각 소제목과 내용이 겹돌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전개가 많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사회의 변화 중의 하나로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인구격차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내용은 농가인구의 감소를 서술하셨는데 토론자 의견으로는 소제목을 농업인구의 여성화, 노령화로 하고 성별, 학력별, 연령별 농가인구를 제시하는 것이 본 주제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촌자녀의 교육현황이라는 제목보다는 예를 들면 자녀교육환경의 악화 등의 제목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여성·가족적 측면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변형된 가부장제라는 소제목 내용으로 신가부장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라는 소제목 내용으로 부모가 자신감 부족과 좌절감을 겪고 자녀결혼에 대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며 일방적 희생이 강요당하는 것으로 서술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셨는지 궁금하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자녀와의 관계부분은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언급한 자녀교육환경의 문제와 연관되고, 또 여성·가족적 측면의 변화에 포함시킨 노후생활대책과도 연관되는데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영역으로 언급하는 것이 혼돈을 야기시키는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농촌여성의 적응방안으로 제시하신 여러 내용들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대책들로 역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역시 세 가지로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내용을 풀어가다보니 논리 전개에 오류가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발표자께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적응방안으로 고유한 생활문화의 재창출을 제시하고 지역특산물 개발을 예로 설명하셨고, 교육시설의 확충을 소제목으로 제시하고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주민 위한 재교육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주장 하는데 이는 원래 문제로 제시한 도농의 인구격차, 마을 공동체의 해체문제, 자녀교육현황, 도시 저급문화의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적응방안이나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토론자의 견해로는 여성·가족적 적응방안으로 생각되는 부부간의 폭력문제 해결방안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적응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오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가족적 측면의 한가지 적응방안으로 주체의식 개혁을 제안 하면서 가정교육차원으로 제한하였고,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을 자원봉사와 젊은 노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농촌여성의 남녀평등 교육과 지역사회개발 의욕 고취는 가정교육보다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가능하다. 산후조리나 가사를 돕는 일, 보육시설 도우미는 자원봉사차원이나 경험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나 전문성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가도우미제도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면에서 훈련된 전문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농촌여성이 산후조리나 농번기의 가사일, 영유아 보육면에서 손쉽게 저렴하게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 경제적인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농촌여성의 가사노동 경감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공동화를 제안하고 공동체 조직을 소개하였는데 이 방안은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일반 농촌사회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 남편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평등의식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상호공조하는 관계체제를 수립하도록 하는 일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후준비대책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제시하였는데 물론 이 방안도 중요하지만 좀더 정책적인 대안과 의식변화를 위한 적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 의료비 보조, 건강검진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노인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설립과 운영, 노인을 위한 이동서비스, 도우미제도의 도입 등이 농촌여성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인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여성의 적응방안과 관련해서 토론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농촌여성이 농촌에 살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로 농사일이 힘들다는 것이 보고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농촌여성이 농사일에 대해 보람이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농촌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이름 통장을 갖게하자는 주장, 농촌 여성으로 하여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의식화교육을 시키자는 주장,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조직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주장,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기계를 개발하자는 주장, 농업정보기술 교육과 기계활용 교육을 시키자는 주장,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자는 주장, 가사노동을 돕는

도우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등 여러 주장들이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농촌여성이 농사일을 힘들어하고 농촌에 살기 싫어하는 문제를 정교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에선 농작업 조건이나 환경, 농작업 기술 활용, 시간 활용, 농작업 의사결정과정, 농작업 소득액, 돈 관리방법, 남편과의 역할분담, 자녀보육, 고립되고 불평등한 지위, 시설문제 등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원방안보다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을 근거로 종합대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 여러 제도를 도입할 때도 현장의 수요도를 고려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검증을 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